

OSCARS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

'아르고' 작품상·편집상·각색상 3관왕



남우주연상 다니엘 데이 루이스

'라이프 오브 파이'
4관왕 최다 수상작

'레 미제라블'
3관왕 차지

제85회 아카데미 작품상은 배우 출신 감독 벤 애플렉이 메가폰을 잡은 '아르고'에게 돌아갔다.

25일(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시상식에서 '아르고'는 작품상과 함께 편집상, 각색상을 수상, 3관왕에 올랐다.

'아르고'는 미국 역사상 실존했던 CIA의 기밀원인 인질 구출 작전을 그린 영화로, 지난해 10월 국내 개봉했지만 4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이번 시상식 최다 수상작은 4관왕을 차지한 '라이프 오브 파이'로 감독상, 촬영상, 음악상, 시각효과상을 가져갔다. 이안 감독은 '브로큰백 마운틴'에 이은 두번째 수상이다.

국내에서 사랑을 받았던 '레 미제라블'은 분장상, 음향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준 핀란 역의 앤 해서웨이는 여우조연상을 차지, 골든글로브 등 미국 주요 영화상을 모두 휩쓸었다.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링컨'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제니퍼 로렌스가 차지했다.

주요 수상작중 '아르고', '라이프 오브 파이', '레 미제라블' 등은 상영이 끝난 작품. 현재 광주에서는 수상작 중 '아무르' 등 3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주요 수상작들이 속속 개봉할 예정이다.

▲현재 상영작
외국어영화로는 드물게 작품상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아무르'는 죽음을 앞둔 노부부의 일상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간 영화계 황금종려상, 영국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등을 휩쓸었으며 지난 연말 광주극장 개봉후, 두달여 동안 꾸준히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칠판 리 자리를 떠나지 않는 관객들이 많으며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로 타로가 직접 출연해 연주하는 슈베르트 '즉흥곡', 베토벤 '바가텔' 등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제니퍼 로렌스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역시 광주극장에서 상영중이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상대의 상처를 가차 없이 덧대가며 서로를



외국어 영화상 '아무르'

끌어안은 '미친' 커플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다.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대화는 시종일관 흥미롭고 주인공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상한' 가족에도 유쾌하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남우조연상 후보였던 로버트 드 니로 역시 명불허전의 연기를 보여준다.

장편 다큐멘터리 수상작인 '서칭 포 휴고', 베토벤 '바가텔' 등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미곡에서 고차 6장의 앨범을 판매한 비욘세의 가수였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슈가맨, 단 두장의 앨범을 남기고 사라

져 버린 신비의 가수 슈가맨을 둘러싼 소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명의 열성팬이 그의 흔적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음악 다큐다.

▲개봉 대기작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도 많다.

당초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화제를 모았던 '링컨'은 오는 3월 14일 개봉한다. 스티븐 스티븐버그 메가폰을 잡았던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명연기를 엿볼 수 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나의 왼발', '데어 윌 비 블러드'에 이어 세번째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오스카 역사를 새로 썼다.

■ 85회 아카데미상 수상작

부문	수상자(작품)
작품상	아르고
감독상	이안(라이프 오브 파이)
남우주연상	다니엘 데이 루이스(링컨)
여우주연상	제니퍼 로렌스(실버라이닝 플레이북)
각본상	쿠엔틴 타란티노(장고: 분노의 추적자)
여우조연상	앤 해서웨이(레미제라블)
남우조연상	크리스토퍼 월츠(장고: 분노의 추적자)
외국어영화상	아무르
촬영상	라이프 오브 파이
편집상	아르고
각색상	아르고
미술상	링컨
음악상	라이프 오브 파이
주제가상	007 스카이폴(인텔)
시각효과상	라이프 오브 파이
장편 다큐멘터리상	서칭 포 휴고
장편 애니메이션상	메리다와 마법의 숲



여우주연상 제니퍼 로렌스

'아무르' '실버라이닝'
광주극장 상영중

'서칭 포 슈가맨'
3월1일·3일 특별상영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들' 신인상 신남영씨 28일 시상식·잡지평가회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이 제 10회 신인상 시상식 및 잡지 평가회를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신인상 수상자는 시 부문 신남영(51)씨로 당선작은 '우리 폐친할까요'의 5편이다.

신씨는 심사를 맡은 고재중 시인과 김형중 문학평론가로부터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다양한 삶의 풍경을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할 줄 아는 솜씨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과 평론 부분은 작품 수준 미달로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계간 '문학들'은 지난 2005년 가을호로 창간된 이래 올 봄호로 통권 31호를 맞았으며, 해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문예지로 선정돼 은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문예지이다.

/박형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진 용혈암터서 청자 불상 출토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백련사 위상 짐작 중요한 자료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용혈암지(龍穴庵址·강진 향토문화유산 제47호인)에서 최고급 고려청자로 제작된 불상과 나한상(사진) 등이 다량 발굴됐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한성욱)은 "강진군 의뢰로 용혈암지를 시굴조사한 결과 고려 혹은 조선시대 건물터 2곳을 확인했고, 이들 건물터와 사찰터 뒤편 용혈이라 불리는 바위굴에서 20여점에 달하는 청자 불상 조각을 수습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자 나한상은 파편 형태지만 온전한 개체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 6개체 정도에 이른다.

조사단은 "청자 불상이 이처럼 다양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더구나 청자 불상 및 다른 청자류



유물이 고급이어서 무인정권을 기반으로 세워진 백련사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용혈암은 백련사 소속 암자로 1245년 무렵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련사는 민중운동인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주도한 곳이며, 고려시대 국사 8명을 배출한 고려 후기 대표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보통사람들의 희로애락 담아

우제길미술관 4월27일까지 'Standing on the art'전

우제길미술관은 오는 4월27일까지 'Standing on the art:storage' 전을 연다.

김우중, 이정용, 정동주씨 등 전남대 미술학과에 재학중인 세내기 작가 3명이 무등산을 배경으로 설치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단순 설치작품에서 벗어나 전시기간 작가들과 시민과의 대화를 작품에 입혀나가면서 조형 설치 작업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자연이라는 그림 위에 서있는 3명

의 작가들이 함께 미술관 공연장, 잔디공간, 소나무 등에 설치된 작품에서 사물들을 비우고 채우면서 작업을 진행해가는 방식이다.

리모델링과 신축 확장 공사로 변화가는 미술관의 모습과도 사뭇 닮은 전시다.

작가들은 "비우고 채우는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삶 속의 희로애락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062-224-6601. /김경민기자 kki@



'Dreaming tre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오세요"

무등현대미술관 '에코지움' 참가학생 모집

무등현대미술관이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에코지움(Eco+ Museum)'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을

모집한다. 에코지움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모두 3기로 나눠 진행되며 각 기수마다 10회씩 모두 30회의 교육이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정원은 매회 25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하기, 친환경 자연재료로 다양한 작품 만들기, 작품 전시하기 등 강의, 관람, 체험, 실연 등으로

진행된다. 무등산 일대를 돌면서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과 자연을 감상하고 교감하면서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062-062-223-66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